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21>

JCCT 2021-11-4

##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시기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한 미군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f the US Military Utilizing Female Personnel Strengths during the War on Terror

홍명숙\*, 유선영\*\*, 이선정\*\*\*, 김인찬\*\*\*\*, 조상근\*\*\*\*\*, 박상혁\*\*\*\*\*

Myung Sook Hong\*, Sun Young Yu\*\*, Seon Jeong Lee\*\*\*, In Chan Kim\*\*\*\*,  
Sang Keun Cho\*\*\*\*\*, Sang-Hyuk Park\*\*\*\*\*

**요약**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민간요소가 강조되는 민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여성 인력으로만 구성된 문화지원팀(CST)과 여성 근접전투팀(FET)을 운용하여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혐지의 차폐된 지형이나 주민 사이에 은·엄폐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상황이해능력, 침착함, 세밀함이 뛰어난 여성 인력을 무인 항공기 운용 요원(RPA)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여성 인력 활용 사례는 미래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도 미군이 경험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간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한 미군의 교훈을 통해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테러, 여성, 문화지원팀, 여성 근접전투팀, 무인 항공기 운용요원

**Abstract** After starting the war on terrorism, the U.S. military began to utilize the strength of its women's workforce by operating a cultural support team (CST) and a women's close combat team (FET) that obtained the information needed for civil operations with emphasis on civil factors. In addition, in order to subdue resistance forces that carry out surprise attacks by covering the shielded terrain of the rugged land or among residents, female personnel with excellent understanding, calmness, and detail were operated as unmanned aircraft operators (RPA). Since the situations that the U.S. has already experienced are likely to be rep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be able to overcome uncertainties in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by utilizing the U.S. female workforce.

**Key words** : Terror, Female, Cultural Support Team, Female Engagement Team, Remotely Piloted Aircraft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제1저자)

\*\*정회원, 강정경영연구소 소장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정보화 담당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 3군단사령부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공동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30일

Received: August 4, 2021 / Revised: August 25, 2021

Accepted: August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 Suk Univ, Korea

## I. 서론

과거, 미군의 여성 인력 활용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지만, 전쟁의 양상이 전통적인 재래전에서 4세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반란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군의 여성 정책은 바뀌기 시작했다. 즉, 대반란전은 재래전보다 민간요소가 준비한 인간영역이 넓어 여성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반란전의 주전장인 중동지역에서 미 지상군(남군)이 현지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은 이러한 문화적 제한사항을 역이용하여 여성을 이용한 다양한 테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차도르와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은 저항세력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군은 이와 같은 현지 여성의 테러 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공격용 드론의 운용이 활발해지자 여성 인력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저항세력은 일시적인 전투 행동 직후 민간인 사이로 사라져버리는 시한성 표적(Sensitive Target)이었으며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감시정찰에 이은 정밀타격능력이 필요했다. 자칫 잘못하면 오폭이나 과잉대응과 같은 민간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강점인 침착성과 세밀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여성 인력이 공격용 드론 운용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국, 미군의 사례는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민간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장 환경에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으며 미래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테러와의 전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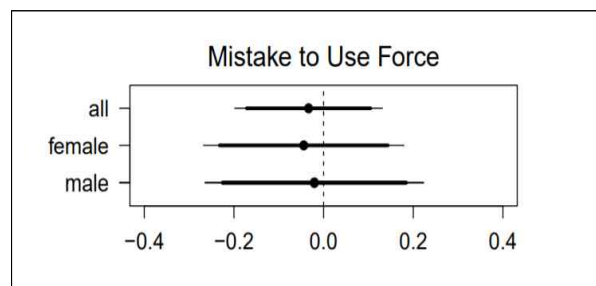
### 미군의 여군 활용정책 변화

1994년, 美 국방부에서는 전투병과의 경우 여단급 미단에서 여군의 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1]. 그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작용하였다. 첫째, 여성 인력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시 국민과 국제사회를 자극하여 반전여론이 형성되고, 결국 국가 지도부의 전쟁수행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둘째, 여성과 남성 인력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커서 이들 사이의 신뢰와 팀워크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우려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대의 다라 코헨(Dara Cohen) 연구팀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 전투원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경우 남성 전투원보다 과급력이 큰가?”에 대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성별에 따른 과급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아래 <그림1>은 1번 가설 ‘Does woman dying in combat erode support for war?’, ‘여성 전투원의 죽음은 전쟁에 대한 지지를 약화 시키는가?’에 대한 결과로 표에서 제시하듯이 전쟁에 대한 지지 약화는 전투원의 사망 자체이지 그 성별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번 가설은 기각되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파병에서 희생된 여성 인력의 수가 173명이었으나, 지금까지 두드러진 美 정부의 정책 변화나 반전 활동이 없었다. 따라서 위 연구진의 연구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robertschub.files.wordpress.com/2019/03/chs\\_womencombat.pdf](https://robertschub.files.wordpress.com/2019/03/chs_womencombat.pdf)

그림 1. 사상자의 성별이 전쟁지지에 미치는 영향  
Figure 1. Marginal effect of shifting from male to female fatality

두 번째 실험은 노르웨이의 남녀 혼성 복무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여성의 모병제 복무를 허락한 노르웨이군은 1990년대 군(軍) 입대자의 30% 이상 여성이 차지했다. 하지만, 여성 인력의 증가로 차별,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혼성복무(Gender Mixed)제도를 시행하였다. “밀접 접촉과 상호 노출이 늘어날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수용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차별이 감소한다”는 접촉/노출 이론(Contact/Exposure theory)을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성 인력을 분대장(Squad leader)으로 임명하고 병영

생활관을 혼성으로 편성하였다. 이후, 남성 인력만으로 구성된 부대와 남녀 혼성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자보다 후자가 여성 인력을 동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성폭력 사고도 감소했으며, 훈련 성과도 높게 측정되었다[3].



출처: <https://www.timesofisrael.com/bras-tanks-and-guns-norways-women-join-the-draft/>

그림 2. 노르웨이군의 남녀 혼성 막사  
Figure 2. Unisex Dormitories in Norway's army.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기간 중동지역에서 대반란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에게 여성 인력의 활용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인센티브 부족, 군인을 예전처럼 명예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군(軍)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이후, 美 국방부는 여단급 미만의 전투부대에서도 여성 인력이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고, 2016년에는 특수작전부대, 기갑부대 등 이전까지 진출이 제한되었던 전투 직위(약 2.2만 개)에 여성 인력을 보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 인력만으로 편성된 부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를 위해, 미군은 남성과 여성 인력의 신체적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Gender Integrated Infantry Basic Training'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군과 여군이 아닌 전투원으로서 인정받는 개념으로 성별 차이가 없는 체력검정을 시행하고 있다[4].

### III.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 미군의 여성 인력 활용 사례

미군은 군사작전보다는 민간요소가 준비한 인간영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를 자극하지 않고, 군사작전으로 현지 주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기동과 화력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여성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美 특수전사령부의 문화지원팀(Cultural Support Team)과 美 해병대의 여성 근접전부대(Female Engagement Team)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미 특수전사령부 문화지원팀(Cultural Support Team, CST)의 사례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군이 이를 어길 경우, 현지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저항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 이에 美 특수전사령부는 2010년 여성 인력으로 구성된 50여 명 규모의 CST를 발족하였다.

CST는 민사활동 시 그린베레, 레인지 등 美 육군 특수부대에 3~5명씩 배속되어 여성 및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또한, 정찰, 가옥 수색, 검문소 운용 등과 같은 군사 활동 간에는 여성들의 몸을 수색하거나 심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문화와 전통을 거스르지 않고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CST가 저항세력의 위협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능력도 겸비해야 하며 CST 요원들은 남성 특수부대와 동등한 체력과 전투기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위생 교육, 대화술, 민사작전 등과 같은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는 해당 작전지역에서 문화와 전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안정화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출처: Afghan War News

그림 3. 포트 브리그에서 진행되고 있는 CST 평가 및 선발  
Figure 3. CST Assessment & Selection at Fort Bragg

CST의 활약은 특히, 2013년 리언 패네타 국방 장관이 미군 내 모든 지상 전투 직위에 여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성명의 단초 역할을 하였다. 이후, 여성의 전투능력에 대한 군 내·외부의 많은 의문과 과연 여성이 특수작전까지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우려에 특수전사령관 배넷 세폴릭 장군은 CST의 활약과 CST에 선발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여군들을 언급하며 그들로 인해 미군은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미군뿐만 아니라 아프간에 참전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군에서의 여성인력 운용의 교훈을 주었으며 미 언론은 “The Army’s all-women special ops teams show us how we’ll win tomorrow’s wars” 라는 기사로 CST의 활약을 소개하였다[5].

둘째, 미 해병대의 여성 근접전투팀(Female Engagement Team, FET)의 사례이다. 미 특수전사령부의 CST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 해병대에서도 여성 인력만으로 구성된 FET를 발족하였다. 미 해병대가 FET를 편성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마음을 얻고 주민을 저항세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미군에게 우호적으로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FET에 문화정보장교(Cultural Intelligence Officer, CIO)를 편성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작전부대가 적용할 수 있도록 참모 조언을 실시하였다. CIO는 작전부대에 실제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주민 집 방문, 학교 및 교육 시설 운용 지원, 지역 지명 유래 및 사람 이름 종교적 의미 파악, 커뮤니티 모임 참가, 결혼식 및 장례식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CIO는 작전부대의



출처: 미 해병대

그림 4. 아프가니스탄 여자 아이와 소통하고 있는 미 해병대 FEM 요원  
Figure 4. USMC Female Engagement Team watches over an Afghan girl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현지 정보와 민심을 획득했다.

FET 요원들은 전술한 CST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신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모두 갖추기 위해 CST와 유사한 선발과 훈련과정을 거쳤다. 2011년 당시 총 35개의 FET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용되었다. 각 팀은 기본 2명으로 편성되었고, 상황에 따라 의무와 통역요원이 증강되기도 했다. FET는 미 해병대 예하 전투대나 중대뿐만 아니라, 동맹군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4년 美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차적인 철수를 결정한 이후 FET의 운용은 축소되기 시작하였지만, 미 해병대는 FET 운용을 통해 지역 안정화가 가속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6].

셋째, 미 공군의 무인 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운용 요원.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은 천연동굴이 즐비한 지형과 주민 사이에 은·엄폐하면서 미군을 기습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웠고, 식별하더라도 오폭이나 과잉대응으로 민간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은 장기간 체공하면서 저항세력을 정찰감시, 식별, 추적 및 타격하는 정밀타격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기존 美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美 공군의 A-10과 전투기들은 장기 체공 자체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MQ-9와 같은 공격형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美 공군은 테러와의 전쟁 기간 MQ-9를 운용하여 알카에다(AI-Qaeda)의 주요 직위자를 제거했고,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에 참수 작전을 전개하였다.



출처: Daily Mail

그림 5. 미 MQ-9의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정밀타격 과정  
Figure 5. How to Kill Iranian General Qassem Soleimani by MQ-9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여성 인력의 美 공군 무인기 조종사 지원율이 높아졌다. 무인기의 경우 전투부대처럼 높은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교대 근무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美 공군도 여성 인력의 무인기 분야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인기는 유인기의 추락이나 격추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낮고, 조종사가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는 가능성 또한 낮으며, 숙달된 무인기 조종사의 경우 동시에 2대를 운용하여 시차공격, 유인-매복공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모니터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며, 차분하고 섬세하게 조종하는 여성 인력의 능력은 무인기 운용에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무인기 운용팀은 조종사(장교)와 센서 담당(병)으로 구성된다. 美 공군사관학교의 무인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인 'Space Program'을 살펴보면, 최초 6주 동안 실시되는 기본프로그램에서는 유·무인 조종사가 함께 교육을 받고, 이후 무인기 조종사는 시뮬레이터로 훈련한다. 이런 무인기 조종사와 무인기의 센서를 통제하는 센서 담당 요원은 1990년대 비주류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드론 작전의 수가 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인기 운용에 필요한 상황이해능력, 차분함, 섬세함을 갖춘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인력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 시한성 표적을 제거하고, 코린 이스터(Corinne Easter) 대위처럼 RPA 조종사를 양성하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6].



출처: <https://www.sanantoniomag.com>

그림 6. 무인기 조종사 양성 교관, 이스터 대위  
Figure 6. RPA instructor, Capt. Corinne Easter

## IV. 결 론

미군은 여성 인력의 활용 분야를 점차 확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 인력이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 장비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인력 전문 조직들이 탄생했다. 美 특수전사령부의 문화지원팀(CST), 美 해병대의 여성근접전투팀(FET), 美 공군의 무인 항공기(RPA) 운용요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민간요소가 준비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문화와 전통을 자극하지 않고, 민간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미군의 여성 인력 정책 변화와 운용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래 전장에서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전쟁의 양상이 재래전에서 대반란전으로 변경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美 육군은 기존의 보수적이던 입장에서 탈피하여 여성 인력의 활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우리 군도 미래 전장을 예측한 후, 미군의 사례처럼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한국군 여성 인력에 대한 훈련체계, 개인 전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Lori Robinson & Michael E. O'Hanlon, "Women Warriors: The ongoing story of integrating and diversifying the American armed forces", Brookings, May 2, 2020.
- [2] Dara Kay Cohen, Connor Huff, and Robert Schub, "At War and at Home: The Consequences of US Women Combat Casual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5(4), 647-671, 2020.
- [3] Finseraas Henning, Johnsen Åshild A., Kotsadam Andreas, Torsvik Gaute, "Exposure to female colleagues breaks the glass ceiling—Evidence from a combined vignette and field experi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90, 363-374,

2016.

- [4] Emma Moore, "Women in Combat: Five-Year Status Updat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March 31, 2020.
- [5] <https://www.washingtonpost.com/posteverything/wp/2015/05/19/the-armys-all-women-special-op-teams-show-us-how-well-win-tomorrows-wars/>
- [6] <https://www.sanantoniomag.com/5-female-air-force-pilots-who-are-changing-the-narrative/>